

중요한 단위는 國家間 및 階級間이라면서 두 가지의 투쟁을 동시에 추진하여 革命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후의 결과만 보면 毛澤東은 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이 증명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 옳았다는 사실이라기보다는 그의 時代가 얼마나 Darwinism이 판을 치던 시대였었가를 보여 주는 것뿐이다. Darwin의 영향으로, 그리고 毛澤東의 성공으로 인하여 東아시아에는 급진적인 進歩史觀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克服하지 않으면 안될 우리 時代의 難治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다윈주의의 수용

성균관대 朴 相 允

우리나라에서 다윈주의를 받아들인 것은 1880년대에 일본인들의 번역서 또는 저서에 의했지만, 1900년대에는 중국인들이 쓴 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는데 특히 嚴復(天演論, 1898)과 梁啓超(飲水室文集, 1903)의 영향은 대단히 컸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生物學의 기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학에 근거를 둔 「種의 起源」은 논의할 수 없었고, 物競天擇(適者生存)과 優勝劣敗(生存競爭)를 公式으로 삼아 國民을 각성하려는 思想的 基반으로 삼았던 것 같다.

190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다윈주의를 소개하는 글도 있기는 하나 이를 사상적 基반으로 삼은 글들이 더욱 많다. 더욱 다윈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생물학적 기초가 없기 때문에 번번이 誤謬를 범하고 있음이 散見된다.

梁啓超와 같은 이도 「飲水室文集」中 「治國學的 兩條大路」에서 猿類로부터 人類가 進化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既存種으로부터 新種이 起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즉

『…再如達爾文之用生物進化說…人既自猿進化以來, 爲什磨人自人而猿終爲猿? 恐怕他也不能結我們以很有理由的解答. …』(다윈의 生物進化論

을 가지고…人類가 猿類로부터 進化한 이래 어찌하여 인류는 인류이고 猿類는 끝내 猿類로 남았는가 아마도 그들도 우리에게 충분히 條理있는 解答을 줄 수 없을 것이다. …(李桂柱譯, 三星文化文庫, 39, 「中國古典入門」, p.36)

또 俞吉濬이 우리나라에서 進化思想을 최초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는 이도 있으나 그의 「西遊見聞」13편 「學術來歷」에 소개된 生物學者를 보아도 進化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또 人類發展을 未開(野蠻) → 半開 → 文明의 方向을 취한다고 한 것도 진화사상이라기보다는 L.H. Morgan(1818 - 1881)의 *Ancient Society*(1877)에서 분류한 야만 → 미개 → 문명의 방향과 비슷하다. 더욱 進化는 直線的인 發展이 아니기 때문에 俞吉濬은 다윈주의자가 아니며 또한 영향도 받지 않은 듯하다.

다윈주의를 그대로 소개한 글 중에는 상당히 깊은 곳까지 탐구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 있다. 石洲 李相龍의 「進化輯說」에서는 다윈의 「種의 起源」을 이해하고 있는 듯하며, 「共修學報」2호(1907. 4. 30)에는 朴有秉이 27 - 29, 3面に 걸쳐서 生物學的인 내용으로 「進化論」이란 題目으로 소개한 것이 있다. 『生物은 其體內와 外界에 狀態로써 直接으로는 其體와 間接으로는 其生殖器官에 人工을 加하여 原種을 變제 하느니』의 내용으로 보아서 후천형질의 유전을 新種形成의 메카니즘으로 여겼던 것 같다. 특히 優勝劣敗와 物競天擇을 강조하고 있다. 즉 『動物은 如斯한 自然淘汰에 因하여 生存하는 物인 故로 自己에 能力으로써 能히 外敵을 防하는 者만 現世에 存在하는 地位를 占得하고 其他은 皆消滅한 境에 歸하느니』라고 했다. 李相龍도 이점은 마찬가지로 『達爾文 英吉利人 種原論曰, 生物變遷之原因, 皆由生存競爭優勝劣敗之公例, 而來勝敗之機, 有由於自然者, 有由於人爲者, 由於自然者, 謂之自然淘汰, 由於人爲者, 謂之人事淘汰, 淘汰不已而種乃日進焉』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다윈주의를 소개하는 글과 설명하는 글들이 1900 - 1910 사이에 많이 발표되었다.

한편 다윈思想은 사회의 여러 방면에 침투하였으며 특히 生存競爭, 自然淘汰, 適者生存이

進化機構로서 굳혀졌고 隔離, 變異機構, 기타 進化의 證據가 될 수 있는 生命現象이나 地史學的 論議는 별로 없었으며 이러한 생각만으로 社會進化의 方向으로 곧바로 끌고 갔었던 것 같다. 嚴復의 「天演論」만 하더라도 학슬리의 「進化和倫理」를 번역한 것이다.

다윈주의의 영향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光華學校(1906년 설립)의 頌祝歌에도 『優勝劣敗 固然하니』의 대목이 있고, 「西友學會月報」, 創刊號(1906. 7. 31)에는 西友學會趣旨書(光武十年十月 日)가 실려 있는데 그 첫머리에도 『凡物이 孤하면 危하고 羣하면 強하며 合하면 成하고 離하면 敗함은 固然之理라 矧今世界에 生存競爭은 天演이오 優勝劣敗는 公例라 謂하는 故로...』라고 했으며, 同月報 論說 “教育이 不興이면 生存을 不得”에서도 朴殷植이 『...曰生存競爭은 天演之理오 優勝劣敗는 公例之事라 하니...』를 비롯하며 文脈이 進化思想에 기반을 둔 듯하다.

「進進彙論」은 일종의 社會史라 할 수 있지만 본문 첫머리부터 進化사상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人類何以貴 以其能革新進化也 生物由微生之蟲 衍而爲人 其中不知幾經天之淘汰 物類之淘汰 始政良革新 而爲直背顛方趾之人屯其可貴也』라고. 한편 「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1일자 論說 “信教自強”에서도 첫머리에 『普天之下全球地上에 億萬人生이 互相競爭者는 勢力而已라 是以로 國土와 人民이 恒常 弱肉強食과 優勝劣敗를 不免하니...』라고 써어 있다.

이러한 例는 더욱 많다. 進化和 進步의 觀念을 결부한 글로서 「大韓每日申報」 1908. 2. 8자 論說 “進化和 降衰”, 同 新聞 1909. 8. 1자 論說 “競爭進化論의 大概” 등이 있으며, 「大韓自強會月報」 5號(1908. 11. 25)에 실린 張志淵의 論說 “團體然後民族可保”, 「太極學報」 10號에 실린 朴庠銘의 “教育이 不明이면 生存을 不得” 등의 글에도 進化思想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舊韓末의 進化論은 生存競爭, 自然淘汰, 適者生存이 主軸을 이루고 있었고 진정한 다윈주의는 理解되지 않았던 것 같다. 당시의 進化論 受容의 特色은 開化 知識人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

했으며, 약간의 動物進化의 논의는 있었으나 植物進化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生物學的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生物進化의 概念의 受容과 吸收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社會進化로의 영접을 받았었지만 進化과정을 連繫的・直線的인 발전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더욱 生物進化에 대한 다윈의 생각은 이를 消化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第25回 全國歷史學大會

科學史部會

1982. 5. 29

新羅梵鐘의 幾何學的 形狀

서울대 廉永夏

1.

1—1. 우리나라 靑銅文化 中에서 世界的인 傑作品을 꼽는다면 梵鐘을 第一 먼저 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梵鐘이 形態・構造面에서 (1) 獨特한 創意性을 지니고 있고, (2) 鐘소리가 清雅하고 은은하며 긴 餘韻을 갖고, (3) 또한 鐘 表面에는 아름다운 紋樣을 갖고 있어, 文化潮流 研究에 貴重한 資料를 提供하여 주는 優秀한 藝術品이기 때문이다.

本研究에서는 앞으로 더욱 優秀한 鐘을 設計하고 發展시킬 수 있는 資料를 作成하기 위하여 韓國梵鐘의 母體가 되는 新羅梵鐘의 構成要素를 中心으로 한 幾何學的 形狀에 대한 實測值를 基準으로 하여 數值的인 解析을 하고 이에 對한 考察을 하였다.

1—2. 新羅時代에 佛教가 國教로 되어 있었고 禮佛行事에는 梵鐘이 使用되었으므로 많은 鐘이 製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國內에 現存하는 新羅鐘을 살펴 보면 (1) 國內 最古인 上院寺鐘(725), (2) 國內最大인 奉德寺鐘(俗稱 에밀레鐘, 771),